

사랑의 지팡이 활동 본격화

관내 독거노인 등 25명 돕기 활발

(사)불런티어크로스 소홀읍센터(대표 양정택)는 지난 9일 후원업체 이사들은 명절을 맞이할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노인분들에게 따뜻하고 기분좋은 추석을 보내시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후원업체 이사들은 명절을 맞이할수록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노인분들에게 따뜻하고 기분좋은 추석을 보내시도록 돕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광배 소홀읍센터 사무장은 "그동안 소홀읍센터에서는 노인분들을 직접 방문하여 음식못해 드시는 분들에게 브루스터를 설치해 드리고 가구가 없는 노인이 정에는 가구를 설치하여 주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라나는 학생들에게도 봉사 기회를 부여하여 봉사활동 점수 확보는 물론 노인 공경과 효도정신을 함양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소홀읍센터(일명 사랑의 지팡이)는 3년전부터 구성되었으나 1년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으며 후원업체 선정은 동일



(사)불런티어크로스(사랑의 지팡이) 소홀읍센터(대표 양정택)는 지난 9일 모임을 갖고 추석을 맞이하는 독거노인들을 돕기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업종의 참여를 제한하여 각 분야에서 골고루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사들은 매월 2만원이상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하며 앞으로 회비를 증액시키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의 지팡이 후원업체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다니엘가구 김복근 ▶모닝글

로리 김승현 ▶B&C치킨 김희숙 ▶시카고피자 이미화 ▶알로에마임 김광배 ▶여우와늑대 컴퓨터 문주식 ▶이가 숯불갈비 이용수 ▶이성만소아과 이성민 ▶SK텔레콤 도재문 ▶제테크부동산 이인화 ▶천보산주유소 정호석 ▶파리바게트 김중국 ▶한서인테리어 한연지 ▶홍삼나라 김화자 ▶홍 헤어 라인 김옥선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여성단체협, 암투병 정명훈씨에 150만원 전달

포천국제조각심포지엄 식비와 교통 정성 모아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1일 간암으로 투병중인 정명훈(43·선단동 거주)씨를 방문, 수술비로 써달라며 150만원을 전달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정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게된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달 산정호수에서 개최된 포천국제조각심포지엄 기간 중 자원봉사에 지원된 식비와 교통비를 지난달 31일에 지급받아 이 금액을 정씨에게 쾌히 전달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성금을 기탁할 수 있게된 데는 행사기간 산정호수의 대우 식당에서 매일 7명의 자원봉사자의 점심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기에 가능했다.

김영자 회장은 "정 씨가 관광버스를 운전하면서 부인과 3자녀를

돌보던 중 간암판정을 받아 투병중인 딱한 사정을 알았다"며 "현재는 버스를 운행할 수 없게돼 가족의 생계마저도 곤란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소 정 씨는 버스운전을 하면서도 포천시모범운전자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했을 정도로 선한 심성을 지니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씨가 받게될 간이식술은 1억원정도의 수술 및 치료비를 필요로 하며 지난 8일 아들의 간을 이식 받아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부족한 정 씨의 수술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일일차집을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영자)는 지난 1일 간암으로 투병중인 정명훈씨를 방문, 수술비로 써달라며 150만원을 전달했다.

“독거노인, 전문봉사원 돌본다”

제43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

포천재가복지센터(센터장 이종해)는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포천시 반월아트홀 소회의실에서 제43기 가정봉사원양성교육(자원과정)을 개최했다.

순애원가정봉사원교육훈련원이 주최하고 포천재가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독거노인, 노인 단독세대 등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가정에 파견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번 교육은 관안농협 부녀봉사회 회원과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해 이론교

육 1일과 실기 및 실습교육 1일을 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이종해 포천재가복지센터 센터장은 "가정봉사원 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경기도에 수원시와 고양시에만 위치해 있는데 고양시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관계로 포천지역의 봉사원들이 과정을 이수하지 못해 현장교육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은 앞으로 급격하게 확산되는 노인복지 정책에 있어 외상노인을 돌보는 전문가 양성을 위해 연2회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가정봉사원 양성교육은 수료하면 수료증을 받게되며 양성과정과 보수과정으로 실시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지난 1일 실시된 제43기 가정봉사원양성교육 이론교육 중 배화여대 전통요리과 주남영 교수가 노인영양문제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사랑방 같은 자원봉사센터 만들게요”

포천시자원봉사센터 문은주 소장 임용

포천시는 지난 5일 시장실에서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 임용식을 개최해 임용장을 교부했다.

이날 임용식은 자원봉사센터 문은주 소장, 전영숙 상담원, 신숙기 운영요원, 이정세 사무원, 김유진 사무원이 참석했으며, 기존 위탁운영기관이었던 새마을



포천시가 지난 5일 시장실에서 포천시자원봉사센터 소장 및 직원 임용식을 개최해 임용장을 교부한 후 박윤국 포천시청장과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관계자 등과 기념촬영을 했다.

운동 포천시지회 측은 강태선 지회장, 임동직 포천시협의회장, 최계국 포천시부녀회장, 이현동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직원임용으로 포천시자원봉사센터는 기존 새마을운동포천시지회 위탁운영 체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된다.

포천시자원봉사센터는 기존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에서 직영운영 체제로 변화했지만, 업무사 큰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임 문은주 소장은 “자원봉사센터를 사랑방 같이 운영하고 싶다”며 “자원봉사자들의 권익증진과 모두가 참여하는 자원봉사센터의 위상정립과 화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소장은 현재 좋은가정만들기 연구소 소장과 (사)대한어머니회포천시지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전영숙 상담원 외 3명의 기존직원들은 그대로 승계 된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포천소방서 명절 특별 소방안전대책 추진

포천소방서(서장 최덕기)는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관내 시설·관광시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이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각종 시설에 대한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안전 대책의 주요내용은 화재 및 각종 사고에 취약한 시설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고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편안하고 여유로운 명절이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포천 소방서를 포함한 경기도 내 30개 소방서에서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특별경계근무 체계를 수립하여 대형 화재시설에 대해 24시간 감시체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내 화재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히 집중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우리 동네를 말한다 ④

관안면 냉정1리 이장 민병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동참”

포천시 관안면 냉정1리는 철원군과 접해있는 포천의 북쪽 끝 마을로 한탄강과 냉정저수지 등이 위치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다.

냉정1리는 150세대 45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데 관안면 전체의 20%이상의 농지가 위치해 농농사 위주의 농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이다.

또 마을 전체 농가 중 80%이상이 농사를 짓고 있으며, 30여명은 전업농으로 주로 대규모 농사를 짓고 있다.

관안면 냉정1리에서 이장을 맡아 주민화합을 이끌어 가는 민병구(55) 이장에게 냉정리의 현황 및 추진사업 등에 대해 들었다.

민병구 이장은 황해도 출신으로 어린시절부터 냉정리에 정착, 이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열심히 생활하는 농부이기도 하다.

냉정리는 민 이장 이하 8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상환 노인회장, 김월순 새마을지도자, 최복만, 리개발위원회(19명) 등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특히 개발위원회는 이장을 위원장으로 각 반장이 당연직으로 마을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냉정1리에서 가장 활성화된 조직은 농농사와 관련된 작목반이다.

작목반은 ‘쌀연구회’, ‘고시히까리’, ‘농협 쌀 작목반’ 등 마을에서 농사짓는 회원들이 구성한 것으로 마을의 주생산 품종 등 농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진농업을 추구하고 있다.

냉정리의 주 생산품은 쌀로 전체 생산의 50%정도를 오대쌀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시히까리 품종을 비롯 3~4품종을 생산하고 있다.

민 이장은 “오대쌀을 주 생산품으로 하는 것은 농협에서 쌀을 수매할 때 오대쌀 위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은 우렁이 농업으로 14농가가 이 방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

민 이장은 “우렁이 농업은 친환경 농업의 대표주자격”이라며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농약을 쓰지 않아 청



민병구 이장
관안면 냉정1리

정함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농업은 관안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마을에서는 전통적으로 복날을 전후한 7월과 8월 중 날을 택해 대동회를 개최하고 있다.

냉정1리는 민 이장 이하 8개 반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상환 노인회장, 김월순 새마을지도자, 최복만, 리개발위원회(19명) 등으로 조직이 구성돼 있다.

특히 개발위원회는 이장을 위원장으로 각 반장이 당연직으로 마을의 중대사안을 결정하는 곳이기도 하다.

냉정1리에서 가장 활성화된 조직은 농농사와 관련된 작목반이다.

작목반은 ‘쌀연구회’, ‘고시히까리’, ‘농협 쌀 작목반’ 등 마을에서 농사짓는 회원들이 구성한 것으로 마을의 주생산 품종 등 농사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며 선진농업을 추구하고 있다.

냉정리의 주 생산품은 쌀로 전체 생산의 50%정도를 오대쌀이 차지하고 있으며, 고시히까리 품종을 비롯 3~4품종을 생산하고 있다.

민 이장은 “오대쌀을 주 생산품으로 하는 것은 농협에서 쌀을 수매할 때 오대쌀 위주로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마을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 농업은 우렁이 농업으로 14농가가 이 방법으로 벼를 재배하고 있다.

민 이장은 “우렁이 농업은 친환경 농업의 대표주자격”이라며 “잡초를 자라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농약을 쓰지 않아 청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귀하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을...

차별화된 식품을 선도하는 기업 “영동식품”



代表 文幸吉

“20년간 오로지 믿을 수 있는 좋은 제품만을 제조·판매하여 소비자에게 보답하겠다는 신념은 변함없습니다”



생산품목

- 영동국수·소면
- 영동메밀·갈국수
- 곰표국수·소면
- 곰표갈국수
- 정훈우동·스파게티
- 차별화된 솔잎·칩·쭈국수

■본사 :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359-2 ■전화 : 031-535-5773 ■팩스 : 031-534-13